

“콩세계과학박물관 현장을 가다”

지난 3월21일. 단양을 지나면서는 마침내 흐린 하늘에서 춘설이 터졌다. 하지만 죽령터널을 지나자 눈이 뛰냐는 듯 영주 시내가 별세계처럼 펼쳐진다. 이날 오전에는 박물관 현장을 오후에는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원)에서 <전시보고대회>가 있을 예정이었다. 집결지는 영주시 부석면 임곡리 120번지 박물관 현장. 박물관은 풍기IC를 들어와 소수서원과 선비촌을 지나 바로 부석사 입구에 있다.

콩세계과학박물관 추진위원들은 약속시간인 11시 이전에 모두 도착해 있었다. 서울에서 버스로 오신 이철호 위원장님, 권태완 고문님을 모시고 오신 송희섭 위원님, 충주에서 오신 김석동 고문님, 대구에서 오신 황영현 위원님, 부산에서 출발하신 문갑순 한국콩연구회 회장님, 그 외 영주시 관계자와 업체사람들까지 스무 명이 넘는다. 지금은 빈 공간이지만 ‘콩의 역사 문화실’ ‘생육과 생태환경’ ‘변신하는 콩’ ‘사람을 살리는 콩’ ‘미래를 밝히는 콩’ ‘콩 체험실’ ‘콩 생육장’ 등 앞으로 차곡차곡 채워질 r가 분야의 전시 콘텐츠를 상상하며 박물관 내부를 돌아보았다.

박물관 옥상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백점만점에 백점을 주고 싶다. 박물관을 가운데 두고는 병풍처럼 산이 둘러싸여 있어 360도 조망이 가능하다. 그 중 백미는 태백산과 소백산의 끝자락이 맞붙어 서로의 아름다움을 겨루고 있는 모습. 산꼭대기에 덮인 잔설은 덤이다. 이어 선비촌내에 있는 중가집에서 냉이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그 외 정갈한 반찬으로 점심을 먹었다. 오후 1시30분. 그동안 전시제작분야, 체험실, 생육장을 맡아 작업을 해왔던 해당업체에서 갖고닥은 내용들에 대해 보고를 하였다. 오후 4시. 모처럼 환한 대낮에 회의가 끝났고, 우리는 새벽에 떠났던 곳을 향해 출발했다.

유미경(콩세계과학박물관 추진위 총무)

